

동편에 목탑, 서편에 법당 복원

영암군, 문헌·발굴 통해 사자사지 목탑복원 추진

문헌에만 존재하던 고려시대 목탑이 국내 최초로 복원된다.

목탑은 목재 특성상 석탑을 이 루는 석부재보다 부재 수급과 가공이 쉬워 뛰어난 예술성을 갖춘 문화재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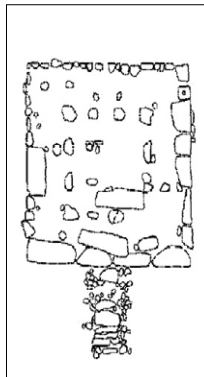
현존 유일의 목탑 보은 범주사 팔상전(국보 제55호)이나 세계 최고(最高)로 추정되는 신라 황룡사9층 목탑(높이 약 82m)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수십여 미터 높이를 조성되는 규모는 당시의 건축기술을 보여줄 뿐 아니라 목탑 내외를 장식한 단청 등은 시대의 문화수준을 가늠케 하는 바로미터다.

하지만 화재 등에 소실되기 쉽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수명이 다하는 단점으로 현재 남아있는 목탑은 많지 않다. 특히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진 12곳의 목탑지(남원 만복사지, 개풍 흥룡사지, 하남 천황사지, 남원 실상사탑지 등) 가운데 복원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런 가운데 전남 영암군이 국내 최초로 고려시대 목탑을 복원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영암군(군수 김일태)은 2월 10일 '영암 사자사지 목탑복원을 위한 학술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영암 사자사지(獅子寺址, 전남도 지방기념물 제197호)는 1995년 순천대 박물관에 의해 '사자사지' 명문 기와가 발견되면서 영암 월출산 사자봉 아래의 탑지와 건물지가 확



사자사지 발굴조사 후 드러난 목탑지 평면도(왼쪽)와 천득염 교수가 제안한 4기 목탑 복원 계획안.

인됐던 곳이다. 현재 사자사지목탑은 소실·멸실된 상태로 문헌자료마저 부족해 실제규명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태.

천득염 교수(전남대)는 주제발표 '영암 사자사지 목탑복원 계획안'을 통해 문헌과 사지 발굴작업으로 드러난 사자사 목탑의 실체와 복원 계획 등을 설명했다.

천 교수는 "고려전기 건축된 사자사목탑은 방형 1칸 3층으로 추정된다"며 "내진조석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내부에 사천주(목탑을 중심으로 네 모서리에 배열된 기둥) 없이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같은 무량구조로 건조됐을 것"이라 말했다.

사자사지 목탑 설계는 화순 쌍봉사 대웅전과 보은 범주사 팔상전 등을 복원의 기본모델로 최근 건립된 진천 보탑사 목탑, 황룡사9층목탑,

미륵사지 중앙목탑 등도 참고하게 된다.

영암군은 사자사지 동편에 목탑을 세우는 한편 서편에는 법당을 복원하는 등 사자사지 복원을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천득염 교수는 "사자사지는 산지 사찰로 전형적인 가람형식을 따르지 않고 동-서축에 목탑과 금강이 자리했을 것"이라며 "원형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 목탑 공포 및 상륜부 체계비 등에 대한 학술적 고증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월출산에는 서쪽에 도갑사, 남쪽에 월남사와 무위사, 북쪽에 성종사지가 있어 사자사지 목탑 복원은 월출산이 불교성지로서의

당당한 위용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문화 향상을 위한 관광 수요 증가 등 파급 효과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인선 교수(순천대)가 '사자사지의 발굴성과'를, 김경표 교수(충북대)가 '고려시대 목탑의 구조형식 유형' 등을 발표하고 윤홍로 박경철 위원(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편 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복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전문가는 "'고증'을 통해 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복원"이지만 "제한된 문헌 정보와 터만으로 목탑 전체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복원 아닌 창조에 가깝다"며 "추측으로 사지에 건축물을 세우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nia.com
김진성 기자 yeam@buddhania.com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 지정

산림청 32개소 우량소나무림 특별관리 들어가

목재문화재 복원 시 필요한 목재 공급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2월 9일 강원도와 경북 북부지역 일대 우량소나무림 32개소를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산림은 가슴 높이 지름(흉고직경)이 60cm 이상인 우량 소나무 1385그루와 통이 굵고 잔 가지가 적은 최고급 소나무 20만여 그루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872ha(남산 크기 2.6배)의 국유림이다.

산림청 송경호 사무관(목재소득과)은 "산림청은 2008년 2월 송례문

화재 이후 7개월여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목재문화재 복원에 적합한 대상목을 찾았다"며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에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는 재질이 우수해 문화재 복원용으로 적합하다고 평가 받고 있는 일명 금강소나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앞으로 이 지역을 문화재 복원용 대경재(大徑材) 생산을 위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숲가꾸기, 병해충방제와 같은 산림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매년 10km의 임도를 확충하는 등 목재생산 관리기반을 체계화할 예정이다. 특히 개별 우량목에 대해서는 무선주파수 인식 태그를 부착해 단목별 이력화 관리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의 소요 대상목 요청 시 입목정보 산출과 생산, 공급을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수목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문화재 복원용 목재생산림'의 특별관리를 위해 오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매년 43억여 원씩 총 22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청은 2005년 7월 문화재청과 문화재 복원용 목재를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북공·광화문 등 문화재 복원에 필요한 소나무 288그루를 3회에 걸쳐 공급했다.

김진성 기자

화엄학 대가 기무라 교수 '동아시아불교' 특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초청으로 강연

일본 화엄학의 대가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일본 국제불교대학 학원대학)가 한국을 찾았다.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안성두) HK사업단은 2월 9-10일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를 초청해 '동아시아불교 연구방법론'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화엄학 중심의 중국불교 전문가인 기무라 교수는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불교연구를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문헌학적·사상사적·비교철학적 연구

를 병행해 온 석학이다.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는 특강에서 "불교연구의 입문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불교연구의 완성은 '끝이 없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라 교수는 "동아시아불교 연구를 위해서는 어학적 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정보교환과 학제간 연구를 통해 연구방법론 완성의 길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차상업 연구교수(금강대 HK사업단)는 "금강대가 진행중인 HK

연구사업은 인도고전어 텍스트들이 중국에 들어와 어떤 변형과 전개를 보이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라며 "이 분야에 대해 고민해 온 기무라 교수 강연이 HK사업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기무라 키요타카 교수는 현 동경대 명예교수를 겸해 국제불교대학원대학 학장을 맡고 있으며, 2003-2008년에는 前 일본인도학불교학회 이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조동섭 기자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점검 학술대회 줄이어

2월 14일 한국사상사학회, 21일 신라사학회 등

1월 19일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이후 최대 발견으로 주목 받은 익산 미륵사지 출토 사리장엄구 발굴성과를 점검하는 학술대회가 줄이어 눈길을 끈다.

한국사상사학회(회장 최기영)는 2월 14일 서강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사상적 측면에서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에 접근한 행사에서는 김상현 교수(동국대), 길기태

박사(국가기록원), 조경철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 등이 발표했다. 김상현 교수는 현장설명회에서 언론에 공개한 사리봉안기 판독과 해석을 바로잡아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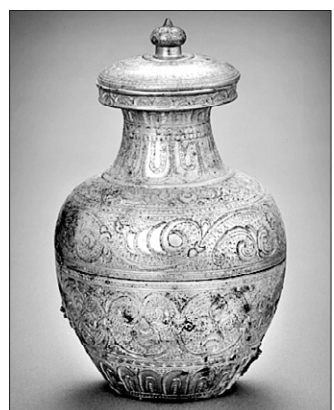
길기태, 조경철 박사는 사리봉안기를 근거로 미륵사지석탑이 조성되던 당시의 백제 불교사상에 대해 발표했다.

신라사학회(회장 김창겸)는 21일 개최될 제82회 정기학술대회 주제

로 미륵사지를 택했다. 학회에는 한정호 연구원(동국대박물관)이 출토된 미륵사지 사리구와 인근의 왕궁리 5층석탑 사리구를 비교 발표할 예정이다.(장소 미정)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소장 최완규)와 백제학회(회장 양기석)도 공동으로 3-4월 중에 대규모 학술대회를 치를 계획으로 알려졌다.(062)850-5557

조동섭 기자



1월 19일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공개한 익산 미륵사지 금동사리구.

논문 모집

보조사상연구원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제 14기 구산장학회 논문을 모집한다.

인도·중국·한국불교 등을 주제로 연구하는 대학원생 및 박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2월 22일까지 공모한다. 선정자는 2월말 개별 통지되며 석사과정 이상 100만원, 박사과정 이상 20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02)733-5311

조동섭 기자

불교미디어란?

진흥원 토론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민병천)은 2월 19일 오후, 마포 다보빌딩 15층 회의실에서 '이 시대, 불교문화의 발전과 불교 미디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역대 대원상 수상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불교문화와 불교 미디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02)719-1855

조동섭 기자

선리연구원

학술상 공모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은 한국불교학 발전과 불교학 연구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 총상금 1400만원의 '선리연구원 학술상'을 공모한다.

논문접수는 2월 26일까지며, 3월 초 선정자를 발표한다. 선정된 논문은 학술지 <선문화연구>에 게재된다. (02)734-9653

조동섭 기자



지혜로 풀어 쓴 불교판 이솝 우화

불교TV 오심 스님의 명쾌하고 재미있는 백유경 해설!

백유경 이야기

오심 스님 지음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이치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책!

백유경의 무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이 세상이다.

책 속의 어리석은 주인공들은 내 부모 형제, 이웃과 친구,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불교 경전들이 엄숙하고 진중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데 반해

이 경전은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를 직접 지적하기보다는 해학과 유머로써 지혜를 가르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心)'과 '혹시 나는 주인공들처럼 어리석은 것을 행한 적은 없나?' 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나도 어리석은 일을 한 적이 있구나.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자이반성(自我反省)을 하게 한다.

해학과 배꼽 잡는 유희가 살아 있는 이 책을 통해 출가자나 세속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불교의 진수를 웃는 가운데서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다.

Human & Books Tel : 02-6327-3535~7 | E-mail : hbooks@empal.com



값13,500원 | 4도 컬러 400쪽